

민주당 VS '안 신당' 후보 치열한 경쟁 펼دت

■이슈&변수

광주 광산구청장

차기 광산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VS '안철수 신당'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민형배(53) 현 청장의 재선 도전에 송경중(43) 광주시의회 부의장과, 송병태(75) 전 광산구청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안철수 신당' 측에서는 김옥봉(63)·서종진(60)·유재신(54)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이 차기 구청장 선거에 나섰고, 정선수(59)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장은 친(親) '신당' 측으로 분류되지만, 아직은 관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복지분야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민 청장은 또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부문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다른 자치단체에 보다 앞선 행정을 펼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맞서는 송경중 부의장은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역구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송 부의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광산지역 최연소 최다 득표로 구의원에 당선되는

■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예정자

정당	안철수 신당	민주당	안철수 신당	민주당	민주당	안철수 신당	무소속
이름(나이)	김옥봉(63)	민형배(52)	서종진(60)	송경중(44)	송병태(75)	유재신(54)	정선수(59)
주요경력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전·광주시 사회복지국장	광산구청장 전·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전·광산구 부구청장	광주시의회 부의장 전·광산구 의원	21C 주민자치참여연대 수석대표 전·민선 2·3기 광산구청장	광주시약사회장 전·광주시의원 (재선)	전·광주시 공무원교육원장 전·광산구 부구청장

※ 후보는 가나다순

민주당 전·현 청장, 시의회 부의장 각축 신당측은 대부분 광주시 고위 관료 출신

우연치 않게 '신당' 측은 광주시의원(재선)을 지낸 유재신 광주시 약사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광주시 고위 관료 출신이다. 김옥봉 위원은 광주시 사회복지국장을 지냈고, 서종진 위원은 광주시 건설교통국장을 지냈다. 만약, '신당'이 내년 지방선거 전에 창당되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이뤄진다면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재선 도전에 나서는 민형배 청장은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고 서서히 선거전을 준비하는 양상이다. 민 청장은 재임기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사회·

등 구의원과 시의원을 지낸 경험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송 부의장은 의정활동을 통해 U대회 수영장 건립, KTX 송정역 단일화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문제를 의회에서 이슈화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 2·3기 광산구청장을 지낸 송병태 전 청장도 광산지역 각종 행사에 참석해가며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송 전 청장은 40년 공직 경력과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다만, 광산구에 신도

시 확대되며 젊은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75세의 '고령'이라는 점이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종진 '내일' 실행위원은 올해 광주시 건설교통국장을 그만두고 일찌감치 바다 민심을 높이고 있다. 내무부와 행정안전부를 거쳐 지난 2009년 광산구 부구청장으로 고향에 내려왔다. 현재 광산미래포럼 이사장을 맡아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회와 봉사활동을 펼치며 바다 민심을 높이고 있다. 건강한 복지광산과 기업·생산도시 건설, 공학이전과 평등 포 사적

장 이전에 따른 광산구의 중장기 발전 전략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3년 전 민주당 경선에서 민 청장에 게 아깝게 고배를 마신 유재신 '내일' 실행위원도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다. 약학박사 출신으로 광산구에서 재선 시의원을 지낸 유재신 위원도 폭넓은 인맥과 원만한 품성으로 아직까지 상당한 조직이 견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은 찾아가는 복지, 행정 서비스 민원체계 구축, 신·구도시 특성에 맞는 발전, 교육혁신도시 건설 등을 주요 전략으로 세울 계획이다. 광주시 사회복지국장 겸 감사 등 지낸 김옥봉 실행위원도 행정경험과 정치 신인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폭넓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민생 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현장형 복지행정 추진, 도시근교 친환경 농업 육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광산구 송정동 출신인 정선수 전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장은 지난 6월 명예퇴직된 뒤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안철수 신당' 측과 교감을 이어가면 서도 관망하는 자세다. 정 전 원장은 광주시에서 주로 기획·경제분야에 근무했고, 광산에서만 16년간 일해 사실상 '광산 토박이'임을 내세우고 있다. 첨단미래 신성장산업을 통한 광주의 중심지 건설, 호남권 광광·레저스포츠 중심도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KTX 송정역 단일화·군공항 이전 쟁점

이용섭 의원 광주시장 출마 여부 주목

차기 광산구청장 선거에서는 KTX 호남선 개통에 따른 광주 송정역 단일화, 군 공항 이전, 도시철도 2호선 확대 순환선 노선 변경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수완·첨단 등 신도심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들의 교육혁신 도시 지정 요구가 높아 각 후보들도 이에 대한 정책공약을 내놓을 전망이다. KTX 송정역 단일화와 군 공항 이전,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의 경우 향후 광산구 발전의 원동력 및 광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후보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변수로는 광산 읍이 지역구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광주시장 출마 여부다. 이 의원이 차기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곧바로 내년 7월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형배 청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민 청장의 경우 애초 광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경력이 있어 이 의원의 의원직을 사퇴한다면 구청장 출마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민 청장이 내년 7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방향을 틀 경우 '무주공산'인 광산구청 자리를 놓고 후보들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형배 청장과의 선거 연대를 고려하는 후보도 있을 수 있어 민 청장의 향후 행보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젊은 유권자 등 유권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완·첨단·신항·신가 등 신도심 표밭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여 '신 도심' 유권자의 표심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의회·북구의회 청렴도 높다

〈7.27점〉 〈6.31점〉
지방의회 10점 만점에 평균 6.15점

광주시의회와 광주북구의회의 청렴도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평균 6.15점(기초의회 5.70점, 광역의회 6.95점)으로 나타났다. 광주 북구는 6.31점으로 조사대상 기초의회 24곳 중 3위에, 광주시의회는 7.27점으로 17곳 중 5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6.87점으로 전국 광역의회 평균을 밑돌았으며, 여수시의회는 5.91점으로 전국 기초의회 평균을 겨우 넘어섰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0~11월 광역의회 17곳,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의회 24곳, 권역별로 최다 인구 기초의회 6곳 등 총 47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조사했다.

평가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무처 직원 등 내부 직원 4404명, 지역 통·이장을 포함한 지역주민 9400명, 출입기자·시민단체와 산하기관 관계자·학계 관계자를 포함한 840명 등 1만4644명에 대한 설문으로 실시했다. 평균 종합청렴도 6.15점은 지난해 627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7.86점, 239개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7.66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설문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경험 ▲삼의·의결 관련 금품·향음·편의 제공 경험 ▲선심성 예산편성 ▲인사청탁 개입 ▲의유성 출장 등 부패인식에 대한 항목으로 이뤄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채포되는 장성택

북한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당으로부터 출당·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9일 이례적으로 장 부위원장이 확대회의에서 체포되는 모습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명(광주 서구) 의원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육상 선수권대회보다 비중이 큰 대회이며, 이미 현행법에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이외에 단일 종목으로 월드컵 축구대회와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등이 들어 있는 만큼 당연히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수영대회 정부 지원법 개정안 상정 주목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정부가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김재우 국제경기대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자로 제안 설명했다. 민주당 박해자

광주시의회, 진보당 해산청구철회 결의안 채택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광주시의회가 9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전체 시의원 26명 중 18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6명, 기권 2명으로 관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이 다수를 차지하는 광주시의회는 이날 결의안 채택을 광주시 일선 구의회의 결의안 '부결기류'와 대조를 이뤘다. 앞서 광주 광산구의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을 회의에 부쳤으나 전체 의원 15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서구의회도 같은날 결의안을 회의에 올렸으나 13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남구와 북구의회 통합진보당 소

속의원들이 같은 발의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의장단 차원에서 안전 상정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교과부가 최근 역사교과서에 특정 세력의 정치적 논리를 반영하고자 6개 교과서에 수정 명령을 했다"며 수정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상명을 내고 "특히 교과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피로 얼룩진 5·18' 등의 소재를 문제 삼아 삭제하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인 5·18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교과부가 재량권 남용 등 절차상의 문제와 교육계의 혼란을 가져오면서까지 퇴행적인 방식으로 역사교과서에 특정 세력의 정치적 논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절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원룸전문(전대1분)

★전대 상대 농대1분★

- 룸11개(1층 상가) • 월수익 420만 • 준공완료
- 매가 5억9천(보증금 2000, 용 1억2천)

★전대 정문 1분★

- 룸18개(만실) • 월수익 600만
- 매가 6억9천(보증금 2억, 용 1억2천)

★전대상대2분 용봉지구★

- 룸19개(1층 상가, 주택1개)
- 월수익 850만 • 매가 12억(용 4억)

★화정동 APT 입구 코너★

- 1층 상가, 2층상가, 3층룸9개, 4층룸9개
- 월수익 1300만 보3억 • 매가 19억

★남구 백운동 ★

- 룸15개(주택1개) • 매가 8억8천

★전대정문 1분 ★

- 룸15개(만실) • 매가 6억3천
- (보증금 4천 월510, 용 1억2천)

신한공인중개사
H.P. 010-6670-9800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암지구

영광 → 호남대학교 → 어등산골프장 →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2475-0933
010-5166-0013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특랑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해 해수욕장과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절경의 고급별장

토지 4,900㎡
건물 245㎡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100%) 건물에 수입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집.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저렴한 문은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싼 도심속 전원 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숲속의 전원 주택부지 및 사할용지로도 적합.

전 3,700㎡
매가 ㎡당 105,00원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신축원룸
(전대·상대·농대 쪽문앞)

원룸
14개를 ▶ 11개로
최고위치!
1층상가
(2~4층 원투스리룸)
등기완료
(전면대리석, 벽돌집)
보증금 3천 월435
(연 5천2백)
매가 5억9천
(용1억3)

수완지구 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3층매매(85평)
3억2천

1층임대(18평)
보3천 월130만
3층임대(86평)
보3천 월190만

062)527-7600